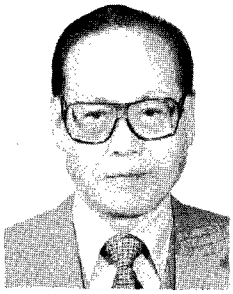
축산재건의 뜻 품고 축산인 되어



오 순 근

■ 필자 약력

- 평양사범 졸
- 보통학교 훈도
- 논산축산 사장
- 원흥식품 가공공사
- 삼덕물산 오리 수출
- 태광물산 대표

隱星에레지

1919년생, 이제 고희(古稀)의 언덕에서 88올림픽의 개회식을 보는 행운을 갖게 되니 참으로 행복하다.

그러나 인생 60부터라 하니 이제 겨우 열살이 된 셈이다.

고희 언덕에서 지나온 반세기를 뒤돌아본다. 한마디로 인생이란 우연의 연속이라고 절감한다.

우리가 얻은 생명자체가 우연인 것을 생각하면 우연 속에 얽히고 섞힌 것이 인생이며 삶이라 하여도 틀릴 것 없다.

지난 87년 1월 양계협회 부근 다방에서 우연히 쓴 "닭"이란 즉흥시를 들고 간 것이 월간「양계」의 권두시가 될줄은 몰랐다.

「양계」지라는 특수지 성격으로 보아 '닭', '가금'에 관한 것을 시제로 써 달라는 말에 당황하면서 "닭"의 삶으로 오늘을 보는 눈과 생명·깃, 나르는 것을 상념으로 시제와 시상을 구상한다는 것이 힘들어 졸고만을 썼건만 어연 20편을 권두시로 실어준 편집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은성(隱星)의 베일을 벗는 '은성에레지'의 넋두리를 해 본다.

필명 은성은 조부님의 아호 은보(隱甫)의 은자를 따서 조부님이 지어주셨다. 한일합방전 조부님은 기서지방에서는 알려진 유학자이며 시인이었다.

1935년 17세봄. 당시 순문예지「조선문단」현상문예에 처녀작 시「범민」을 본명으로, 수필「일기」를 필명 은성으로 응모한 것이 모두 가작 입선이 되었다. 이때의 당선작가 안수길씨가 문단의 월로로 작고하였고

남북한 원로작가들이 들어있어 최연소 입선자인 나로서는 뜻밖의 일로 이날부터 나는 문학소년의 꿈을 키우게 됐다.

그러나 당시 관공립학교 학생이 조선말과 글을 쓰는 것은 금기나 다름없던 시기였다. 책방주인이 나를 알아보고 깜짝놀라 주의시킨 말도 '주의'와 '비밀'로 하라는 말이었다.

제일 즐거워하실 조부님은 그해 4월9일 돌아가셔 슬픔에 잠긴 채 4월20일 책방에서 「조선문단」 4월호를 보고 안 것이다.

1937년 3월 평양사범학교를 나와 학교훈도가 되면서 문학소년의 꿈은 사라지고 어연 53년이 지난 오늘 오랫만에 쓴 즉흥시가 겸연쩍어 「은성」 필명을 다시 써본 것이다. 53년만의 다시 사용하게 된 나에게는 뜻깊은 일이다.

훈도 5년째 되는 해 변신을 시작하여 철공공사와 토목공사 청부업자가 되어 동주서분 하던중 8·15 해방을 맞아 나는 축산인으로 변신했다.

해방당시의 20만원(현재의 20억상당액)을 투자하여 논산축산공업주식회사 사장이 됐다.

이때의 나의 소신은 해방조국에서 사업가로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조국재건은 농촌경제에서 찾아야 하며 농촌경제부흥은 식생활 개선과 같이 축산의 진흥이며 축산진흥은 축산가공의 진흥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판단으로 미개척산업인 축산가공업의 선구자가 된다는 포부와 자부심에서 해방당시의 금액으로서는 막대한 자금을 애국애족의 사업가가 되리라는 결심으로 고난의 축산가공업 경영을 결정한 것이다.

"햄·소시지"의 이름조차 생소한 시대에 햄·소시지공장을 경영하였으니 그때의 그 애로점과 곤경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해방당시의 '자본'의 개념은 '모리배', 사업가는 '자본가'로서 '민중의 적' 정도로 매도하던 때 그 큰돈을 투입한 나는 국가장래를 배려한 사업가로 이 나라 재건의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당당했고 그 고난은 진정 국가의 고난과 같이 하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경영하였고 농림부, 충남도청 축산과 등 당국이 나의 뜨거운 열성에 축산가공에 관한한 행정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도와주었다.

즉 1948년 5월 14일의 단전사건때도 전등은 물론 공장은 폐업위기를 맞게되자 정부는 전기공급 비상령으로 필요불가결공장 이외는 윤번배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중에도 중요공장만은 24시간 특수송전하는데 상공부가 배정한다는 발표를 했다. 당시 논산축산의 소요전력은 10kW도 안되는 7.5kW였다. 그 7.5kW의 공장이 특수공장으로 전력사용의 허가란 바랄 수 없는 공장이다. 7.5kW는 공장냉동기 7.5마력용에 소요되는 것인데 7.5마력냉동기용 전기특별배전이란 신청자격도, 요건도 안되었으나 나는 한국 유일의 축산가공공장의 명맥과 축산물가공업의 대의와 명분을 들어 충남도지사의 추천장과 농림부장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상공부 전기국장을 찾아가 당당히 설명을 하고 국가재건의 축산물가공의 사명적 과업의 존폐가 걸린 것이라 열변을 통하고 돌아왔는데 충청남도에 특수 배전허가가 장항제련소, 대전의 충남제빙, 논산축산, 3공장만에만 허가장이 나왔다. 이 허가장으로 전기회사가 직접 특수배전·송전배선 공사를 무상으로 개수하여 준 사실이다. 그때 전국비상전력 사용허가를 받은 공장이 100군데도 안되는데 7.5kW의 특수배전공장이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그때의 나의 젊은 열기와 진정으로 축산가공의 사명감 때문에 당국이 나의 진실을 그대로 믿어준 행정의 정직과 진실한 시대였다.

시세말로 1원 한 장 쓰지 않고 오직 진정과 진실의 설득이 통하던 시대였음을 입증하며 오늘날의 행정기관의 독선과 가식된 민의 운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54년 9월까지 10년간 고난의 길은 나의 사명감에 호흡해 준 정부의 배려로 늘 축산가공업에 대한 자부와 긍지로 그 고난을 극복하였다.

1946년 5월에는 군정청 농림부 축산과에서 이병학씨 등과 같이 창립위원이 되어 대한축산학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해방후 축산업계는 수원고 농축산과 출신(현서울농대)과 각도 농업학교 축산과 출신, 유학생인 동경아자부수의학교, 일본고등수의학교로 구성된 사람들이 오늘의 축산계를 이룩한 원로들이다. 이 중에 사범학교 출신이란 기이한 존재로 나 자신의 영여가 아닌 '축산가공'이란 대의에 살려는 순수성에 스스로 도취된 시대였다.

당시 미군의 군수물자의 범람으로 햄, 소시지값이 우리의 돈육값 정도였으니 논산축산의 제품을 아무리 싸게 해도 돈육값으로는 안되

던 때였다. 그러나 신선하다는 조건 하나로 설득하여 양식의 총본산 같은 서울역식당, 중앙청식당, 서울시 식당, 호수그릴, 국제구락부, 명동 식품 등 양식전문의 경영주를 설득하자 값싼 미군 것을 거절하고 "논산햄·소시지"를 사용해 준 일은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일이었다.

1949년 4월에 문교부의 신문공고로 한국의 공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자를 일본에 파견하여 기술유학을 시켜야 국가백년의 계획이 된다는 설명으로 문교부 파견 일본기술 유학생모집광고가 났다.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으로 각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섰다. 나는 평양사범학교의 추천장을 받을 수 없어 곧 문교부에 가서 지원서를 가지고 이력서에 충남도지사 농림부장관의 일본유학생추천장을 받아 제1호로 유학생 지원을 했다.

그랬더니 9월초에 경기고등학교로 응시하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다. 놀란 것은 450여명이 운집한 것이다. 모두가 대학출신이다. 모두가 구제(일제시 학교)전문학교와 대학출신이고 그중에는 일본대학 공과출신이 대부분이다. 시험과목은 "기술유학에 관하여"라는 논문이다. 시간은 2시간, 백지 4~5매였는데 옛날 과거시험이나 마찬가지다.

2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나는 백지 4~5매가 까맣게 되도록 써냈다.

10월말경 제2차 시험을 보러 서울중고등학교로 나오라는 통지다. 이곳에는 150명이 모였다. 자기 전공과목의 시험인데 축산가공학이란 나에겐 생물시험지가 왔다. 어찌됐든 시험치르고 돌아왔는데 12월말인 50년 1월 20일경 풍문여자중고등학교로 제3차 시험을 치러 오라는 통지였다.

나가보니 꼭 51명이 왔다. 이때는 일본어 또는 영어의 시험이다. 수험번호 1번인 나에게는 행운 같기도 하고 또 정부가 몇명 보낸다는 인원발표가 없으니 이것으로 끝나는줄 알았다. 그런데 3월초에 문교부로부터 기술교육국장실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34명이 나왔고 면접과 구술시험이 있었다. 3월말 합격통지와 함께 여권수속 서류를 문교부 총무과에 제출하라는 통지가 왔다. 참으로 감격의 순간이었다. 나도 정부 유학생으로 동경대학 축산과 청강생으로 가게 되었으니 그 감회는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 여권수속 서류제출시 17명의 합격자라는 말에 더욱 놀랐고 450명중의 17명이어서 옛날 과거에 등극한 것 같고 그위에 모두가 대학출신인데 사범출신은 단 1명이니 자랑스럽기도 했다.

5월 9일 문교부장관실에서 최규남 기술교육국장의 호명으로 백낙준 장관이 직접 여권수여를 하고 유학생의 사명과 책임의 훈시를 듣고 일본으로 떠나기만 기다렸다. 6·25가 아니었으며 나도 동경대학 축산과 2년 유학생으로 한국 축산업계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 그러나 이것은 운명으로 체념할 수 밖에 없었다. 6·25사변후 밀항하여 7~8명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동지도 있다.

6·25로 인하여 유학의 꿈이 무산되고 충남도청으로 육군본부가 후퇴했다는 방송을 듣고 밤을 새워 햄, 소시지를 30kg정도 만들어 룩색에 메고 충남도청 육군본부 조달감실을 찾았다. 햄·소시지를 야전식량으로 즉석 시식회를 갖고 즉석에 채택되어 조달감실 군납공장 제1호가 되어 논산공장에 장교와 하사관 2명이 파견되어 7월 17일 논산 철수시까지 주야 24시간 생산공급을 한 사실이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조달감실 양말계(糧抹係) 문관근무도 했다. 1951년 4월 논산공장 복구를 간청하여 군복을 벗고 논산공장재건으로 복귀하였으나 부산 피난시절 또 우연한 인연으로 자유당의 정치파동에 관여한 것이 인연이 되어 53년 9·28정부가 수복되자, 서울로 상경한 동지들의 강력한 상경요청을 거절못하고 1953년 10월 자유당 재건중앙위원회의 사무장이 되어 중앙청에서 기거하고 현재의 4·19회관인 이기붕씨의 서대문집으로 출근하여 비서노릇을 하게 되니 논산공장을 정리하여 54년 1월 가족들도 상경하여 논산축산은 사라지고 햄·소시지도 미군군수품에 밀리게 됐다. 이때의 재건자유당중앙위원중에서 현재까지 정계에 있는 분은 민주당 박용만의원 한 분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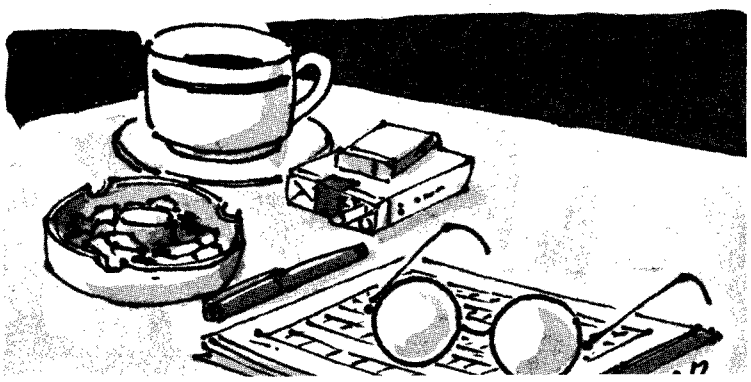
이 변신만은 내가 일생을 두고 후회하는 일이다.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니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축산가공의 집념의 사나이가 정치노름과 화사한 꿈을 꾼것이 잘못인 것이다.

그 후의 변신은 발명에 열중하여 "술"제조특허장도 받고 그외에도 수종의 실용신안도 받았는데 그중 수산물가공법 실용신안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4·19가 나자 집을 팔고 마장동의 시영 도축장 개장에 맞추어 마장동 도축장 앞에 대지를 사

고 공장건축과 수산물가공기계 시설을 수입하고, 논산공장 종업원을 상경시켜 다시 원흥식품가공공사를 창립 햄·소시지와 수산물 가공훈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때 축정국장이 김영한씨였다. 김국장의 주선으로 일본농림성 축산위생과장 다나까씨를 만나 한국 축산가공의 연혁과 현황을 설명하자 일본의 축산물가공공장시찰 권유를 받고 일본농림성 주선의 초청장을 받고 1961년 5·16이났다. 그래도 여권신청을 하여 9월에 군사위원회 외무장관명의 여권 제29869호를 받았으나 비자신청중 61년 10월 김종필-오히라메모사건이 정치문제화 되어 한·일간의 교섭이 끊겼다. 비자신청도 중단되었다. 일본의 공업신문까지 나의 초청과 여권발급으로 곧 입국한다는 기사가 났다. 그러나 이것도 중단되었다. 동시 원흥식품도 혁명당시의 통화유통정지에 부도를 당하고 공장은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말았다. 또다시 햄·소시지의 명맥은 끊겼다. 부도를 당하고 실의에 차 있을 때 축산계 인사들의 추천으로(축산물 가공전공이라는 명제때문에) 오리고기 100만불 수출을 한다는 무역회사 공장장이 됐다.

이때 나는 가공용 오리품종 선정에서 우리 기후에 적합한 흰오리 "골덴"종란 5,000개를 홍콩에서 수입하여 부화장 선정은 노량진 부화장 강금로씨에게 위촉하여 부화유추의 무상분양과 산란의 전량수매 조건으로 전국 각지 사육자 모집을 하여 이것이 오늘날의 흰오리 골덴의 전국 보급의 근원이 되었으니 내가 흰오리보급의 창시자가 된 셈이다. 그리고 육추사료로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 "컴푸리"를 일본 북해도에서 50주종묘를 수입하여 수유리 오리가공공장에서 육성재배하여 분주 공급한 것이 우리나라의 컴푸리 보급의 효시가 되었다.



오리고기 가공수출은 고생만 하고 실패했다. 그 이유는 축산전문가가 아닌 무역업자가 생명을 갖고 있는 가금의 육추와 사육문제 등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업수지만 계산한 맹목이 빚은 결과였으나 이 일로 오늘날 오리고기 가공으로 큰사업을 하게 된 흰오리의 보급원인이 되었으니 이렇게 축산계도 우연의 소치로 발전되었다고 하겠다. 이때 나는 화학사료의 발명특허도 받았으나 이것 또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햄·소시지, 흰오리 골덴, 컴푸리 도입 등 모두 창시자역은 했으나 그 소득이 나에게는 없다해도 오늘날 축산가공업계의 밑받침이 되었다는 것으로 자위할 뿐이다.

이렇게 나도 "축산인출신"이라고 자부한다. 이것이 모두 1963년까지 내가 종사한 나의 축산과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은성은 시인도 아닌 축산계 출신의 고희의 노인청년임을 밝히는 것이다.

인생이란, 또 삶이란 "생명"이란 점에서는 가금이나 인간이나 같은 것이다. '사는 것',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며 삶이다.

불가(佛家)의 설로 "공수래 공수거"라던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없는것이 있는 것이다"라는 알송 달송한 말과같이 인생이란 삶의 뜻보다 이 파란만장의 세파속에 살아 있다는 것이 무한의 행복이라는 것을 가금, 날짐승 등의 눈으로 새겨 본다는 것이 내 권두시의 내용이며 뜻이다.

시에 뜻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예지가 아닌 「양계」지에는 아무리 시상을 가다듬어도 이런 상념아닌 시상 이외는 있을 수 없다. 공감여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편집부의 호응을 새겨볼 뿐이다.

아직도 핑크색 짙은 연서를 19세 소녀에게 보낼 수 있는 열정이 남아 있어 시간이 있으면 시집을 들고 감상에 젖어들기도 한다. 과연 나는 노인인가, 노망인가 자문해 보면서도 나는 항상 내 인생은 황금색 보랏빛만 보고 있어 "은성에레지"는 "환타지"(FANTASY)가 아닌 "환타지아"(FANTASIA)라 부르련다. 양계